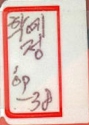


ARCHITECTURE
ART

SPACE

200906

DAEJEON ORIENTAL
MEDICINE CLINIC &
RESIDENCE / HOUSE ON
SANGDO-DONG ALLEYWAY /
VENTANA CANYON HOUSE /
RESIDENCE IN AFRICA,
BEYOND NATIVE, NOW IT IS
ABOUT LOCAL
CHARACTERISTICS



499

공간사

안창홍 AHN CHANG-HONG

인터뷰 박성태 편집장
 Interviewer Park Seong-tae Editorial Director



1. Self-portrait: after 33 years, acrylic on canvas, 2002
 2. Bed couch 1, acrylic on canvas, 400 x 210cm, 2008

너무나 처절한 아름다움 EXTREMELY UGLY BEAUTY

안창홍은 고집스럽다. 1976년 부산 현대화랑에서 정복수와 2인전을 열며 미술계에 등장한 이래 30년이 넘도록 끈질기게 자신의 본령을 지키고 있다. 퇴폐적이고 자전적인 총천연색 그림으로 부산 형상미술의 등장을 이끌었고, 어둡고 음습한 인물 그리기를 통해 인간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가장 상업적이지 못한 작가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는 상투적이고 의례적인 한국 미술계에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초기작부터 죽음의 그림자와 함께했던 그는 폐암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도 올해 부산시립미술관과 서울 사비나미술관에서 연이어 개인전을 열었다. 양평에 홀로 작업실을 마련해 일주일도 못 버틸 거라는 주변의 예상을 깨고 20년 넘게 그곳을 지키고 있는 그를 찾아갔다.

2009년 2월 28일부터 5월 5일까지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시대의 초상>이라는 타이틀로 개인전이 열렸다. 2001년 이후 작품인 '자연사박물관 연작', '40인의 명상 연작', '불날은 간다', '부서진 얼굴', '베드 카우치' 등이 전시됐다. 굉장히 큰 규모의 개인전이였다. 굉장한 전시였다.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전국 공공립 미술관에서 내 나이 또래 작가가 공식적으로 이런 규모의 개인전을 연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다. 회고전도 아니고, 옛날부터 묵혀뒀던 작품들도 아니다. 지난 4년 동안 그린 작품들 중 170점을 선별해 전시했다. 사실은 사비나미술관 전시가 먼저 기획됐다. 이명옥 관장과 의논하니 고맙게도 부산시립미술관 전시를 양해해주었다. 규모도 크고, 이런 기회가 또 있겠느냐는 판단 때문이었다. 사비나 전시를 위해서는 신작 6점을 따로 준비했다.

전시를 꾸준히, 많이 한다.

외부 일정이 없는 날은 보통 10시간 이상 작업에 매달린다. 작품 크기도 점점 커지고 있어 작업량이 만만치 않다. 가장 큰 그림이 450×250cm인데, 1년 동안 10점을 그렸다. 사다리를 수백 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작업했다.

2007년 폐암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 항암 치료가 끝나자마자 서울 아트사이드에서 정복수와 2인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 폐암은 완쾌된 것인가?

의사 말로는 병이란 것이 수술하고 나면 더 환자가 된다고 하더라. 나는 수술 후에도 환자 같지 않았다. 죽고 사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원래는 수술 후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지만, 나는 작업실로 와서 바로 작업을 시작했다. 지금은 건강하다.

병원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나?

암 수술을 받고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나에 대한 성찰을 했다. 그동안 자신만만하게 내 그림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병상에 누워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 쓸 만한 그림이 하나도 없었다. 내가 정말 엉터리 그림을 그려왔구나 싶어 뼈저리게 반성했다. 그런데 퇴원하고 건강을 회복하니 역시 내 그림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한 장도 없애지 않았다. 인간은 정말 간사하다.

이번 작품들은 이전과 조금 다르다. 주변 인물이 주인공이다.

이번 작품의 대상은 평범하면서 내가 비교적 잘 아는 사람들이다. 농부든 성공한 사업가든 사회적·육체적으로 구속당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일탈을 꿈꾼다. 그래서 내가 제안하면 처음에는 약간 소극적으로 다가오다 나중에는 스스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다가온다. 그림을 통해 또 다른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속 모습은 분명 자기 모습인데 전혀 다른 자신이 보인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껍질이 결국 작가인 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인 것 같다. 결국 그림 속 인물은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 내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내가 원하는 욕구를 그림을 통해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이 모델의 모습과 이중으로 겹치는 것이다.

사실 선생의 작품 특징 중 하나가 촌스러울 정도로 컬러풀한 색감이다.

그렇다. 의도적으로 컬러풀한 작업을 지속해왔다. 그런데 과거 그림들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전두환 군사정권 때는 흑백 그림을 그린 적이 있다. <가족사진>이 그때 나왔다. 그때 본격적으로 흑백 작품을 그리다가 없어졌고, 지금 다시 나타난 거다.

이것은 마치 스트레스에 대한 일종의 자각 증세인 것 같다. 나는 매우 감각적인 화가이기 때문에 색을 쓰면서 얻는 카타르시스가 많다. 그런데 이번 그림에서는 감정을 억제하는 느낌을 지향하며 흑백으로 그렸다.



그림 크기가 큰 이유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아름다움과 숭고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다. 우리나라의 고악한 환경에서도 끝없이 살아남고 앞으로도 끝없이 살아남아야 하는 인간 삶의 모습들이 처절하면서도 아름다웠다. 또한 나 스스로도 생사의 갈림길에서 병마와 싸웠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가 합쳐져 지금의 작품이 된 것이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본질적인 아름다움으로 작품에 접근해보자는 의도가 있었다.

그림 속 육체가 아름다우면서도 퇴폐적이다.

나는 논리적이고 개념적인 화가가 아니다. 감성적이고 현실적인데 다만 약간 저항적인 끼를 타고났다. 또 그림을 통해 자유로워지고 싶고, 그러면서도 인간에 대한 삶의 향기를 외면하고 싶지 않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엉켜 있다. 그런 와중에 세상의 바다에서 작품 소재를 건져낸다. 구더기든 사람이든 결국은 출렁이는 삶의 바다에 떠다니는 각각의 배일 뿐이다. 그렇게 내 지각 속에 건져지는 사람을 그린다. 이번에도 특정 대상을 고른 것은 아니다. 최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렸을 뿐이다. 어떤 인물을 통해서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노래하고자 한다.

또 어둡고 음습한 '공기'가 느껴진다.

그림은 결국 소통이다. 소통이 안 되면 아무리 훌륭한 그림도 가치가 없다. 그림은 작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의도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지 생각한다. 그런 의도를 색깔 등을 통해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을 적절하게 끼워 맞추어 수 있는 것은 작가의 재능이다. 그 어둡고 음습한 '공기'가 안창홍이라고 보면 된다. 내 마음에 들면서 동시에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기는 쉽지 않다.

한국 미술계에서 독특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그것이 삶의 경험과 연관되어 있나?

삶과 예술은 절대 구분될 수 없다. 삶의 바로미터가 예술이다. 그래서 삶을 반영하는 것들을 들추시고, 냄새를 맡고, 그들을 찾아다니고, 그

그림을 통해 자유로워지고 싶고, 그러면서도 인간에 대한 삶의 향기를 외면하고 싶지 않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엉켜 있다. 그런 와중에 세상의 바다에서 작품 소재를 건져낸다. 구더기든 사람이든 결국은 출렁이는 삶의 바다에 떠다니는 각각의 배일 뿐이다. 그렇게 내 지각 속에 건져지는 사람을 그린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야기해보는 것이다. 그 사람들의 삶과 향기를 말하는 거다. 물론 소설도 읽고 영화도 본다. 그런 것에서도 감각의 도움을 받는다.

상업적인 성공에 관심이 없다.

누가 그러더라. 대한민국에 돈에 무심한 작가가 2명 있는데 그중 하나가 나라고. 과거 밥 한 그릇을 못 먹고 라면 하나로 하루를 연명할 때도 나한테서 그림을 못 사간 화랑 주인이 있었다. 나는 돈보다는 자존심을 선택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울 수 있지 않았나 싶다. 물론 고생은 많이 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불구가 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밥을 못 먹어도 행복했다.

그림은 결국 소통이다. 소통이 안 되면 아무리 훌륭한 그림도 가치가 없다. 그림은 작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의도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

반항이나 갇 같은 것은 타고나는 것 같다. 그리고 누구나 다 어릴 때 원칙을 정하지 않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해놓은 원칙을 조금씩 깰아먹는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스스로 공중 분해된다. 나는 세상을 탓해본 적이 없다. 내 스스로를 가혹하게 채찍질했다. 원칙에서 벗어나면 스스로를 괴롭히는 타입이다. 나는 화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정해놓은 정말 순진한 원칙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진짜다. 어릴 때 꿈꾸고 생각했던 정의와 진실에 대한 것들이 진짜다. 그런데 점점 오염되고 잊어버린다. 그리고 자기변명을 정당화하기 위해 오히려 더러워진다. 나는 최소한 그것은 하지 않으려고 했다. 내 나이쯤 되면 그림도 인내와



삶과 예술은 절대 구분될 수 없다. 삶의 바로미터가 예술이다. 그래서 삶을 반영하는 것들을 들쭉시키고, 냄새를 맡고, 그들을 찾아다니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야기해보는 것이다. 그 사람들의 삶과 향기를 맡는 거다.

끈기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열심히 몸으로 그리는 화가는 사실 힘들다. 그러나 내가 만들어놓은 원칙에서 이탈하고 싶지 않다.

예전엔 꽃 그림도 그렸다.

실험을 해본 것이다. 너무 잘 팔렸다. 그래서 붓을 뗐다. 1996년쯤 꽃그림 전시를 했는데, 모두 팔렸다. 꽃 그림으로도 사실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았다. 본격적으로, 제대로 하고 싶은 것 중 하나다.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해볼 생각이다. 나는 무엇을 그리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 속에 일관되게 담고자 한다.

어떤 작품을 보더라도 에로틱하면서도 죽음의 암시가 있다.

내 그림을 보면 기운이 느껴진다. 나는 그것을 그린다. 내가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내가 갖고 있는 감각이나 생각 등은 바늘 끝 같은 것이다. 부드러운 스펀지 같은 외모 속에 감춰진 바늘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이 내 삶의 고통이기도 하다. 세상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연민이 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대 고독이나 죽음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다. 내겐

일찍부터 죽음에 대한 생각이 그림자처럼 항상 있었다. 그것은 과학자든, 예언가든, 예술가든, 영원한 수수께끼다. 정의할 수 없는 것이며, 저울에 달아도 측정할 수 없는 무형의 공기처럼 투명한 암초이자 불안이다. 또 그런 것 때문에 인간이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자화상을 그리는 이유는 선생 내면의 억압을 풀기 위한 것인가?

고독한 화가들이 자화상을 많이 그린다. 화가들이 자화상을 그릴 때 보통 사진을 보고 그리는데 나는 거울을 보면서 그린다. 나는 자화상을 그릴 때 나와 대결 구도에 놓이는 것을 즐긴다. 나와 거울 속에 있는 나. 자화상이 완성될 때까지 나는 끝없이 눈과 눈을 마주 본다. 나를 닮은 또 하나의 모델이 서 있다. 그러면서 대결 구도에 나를 난도질하고, 파헤치고, 그 속에서 다른 사회 속에 던져진 내 부분이나 냄새를 찾는다.

2000년대에 들어 보다 과감하게 매체를 사용하고 있다.

1990년대가 여러 가지 내적인 문제를 정리하고 스스로를 유추해보는 과정이었다면,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내 작업에 확신을 갖게 됐다. 그 확신을 통해 내 작업의 맥을 형성할 수 있는 본격적인 실험을

감행한 것이다. 사진 시리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탐구를 했다. 다른 형식의 페인팅 작업도 한 시기다. 물론 그 실험들이 지향하는 지점은 동일하다. 하나의 지향점을 위해 끝없이 실험하면서 계단을 밟아 올라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 지향점이란 어떤 것인가?

인간에 대한 탐구다. 자유와 저항에 대한, 작가 스스로에 대한, 그리고 보편적인 인간의 삶과 가치에 대한 주목 등이 지향점이라 할 수 있다.

다른 분야에도 관심이 있나?

그림도 완전한 정신의 산물은 아니다. 사실은 불안정하다. 그림에서 표현하지 못한 또 다른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내 그림처럼 스토리가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

3. Installation view at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2009
4. *Leather sofa*, acrylic on canvas, 122 x 45cm, 2009

Ahn Chang-hong is persistent. Since he made his debut in art circles through a joint exhibition with Jung Bok-soo at Hyundai Gallery in Busan in 1976, he has determinedly retained his own characteristics, and he has done so for more than 30 years. He led the emergence of the trend of figurative art in Busan with his decadent and autobiographical, all-natural color paintings. Moreover, he has not lost interest in people as subjects, as shown by his depictions of dark and gloomy human figures. Ahn, who has long held the "honorable title" of the most non-commercial artist, has established an unrivaled reputation as such in Korea's art circles, which are clichéd and predictable. The shadow of death had been a theme since his early works, and he himself has been face-to-face with death after being diagnosed with lung cancer; yet, he has managed to hold consecutive solo exhibitions this year at the Busan Museum of Modern Art and at the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in Seoul. He has set up a studio independently in Yangpyeong, Gyeonggi-do Province, and has been there for 20 years, contrary to the predictions that he could not stand it to be there even for a week. *Space* has visited him in his studio for an interview.

Your solo exhibition titled "Portrait of the Times" was held at the Busan Museum of Modern Art from February 28 through May 5, 2009. Your major works since 2001, including the serial works of "Natural History Museum," and the serial works of "Meditation of 49 Persons," "Spring Days Gone," "Broken Face," and "Bed Couch" were on display.

It was a magnificent exhibition. As far as I know, it was the largest exhibition in the nation's public art museums, and the first time for an artist of my age to hold a solo exhibition of this scale. It was neither a retrospective exhibition, nor did it feature old works I worked on a long time ago. I selected 170 works for the exhibition from among ones I painted over the past four years.

You seem to hold a lot of exhibitions in a steady manner.

There would be no artists of my age who have held as many solo exhibitions as I have. If I don't have any other commitments, I work on my paintings for more than 10 hours a day. The size of my works is getting bigger, so my workload is not easy to cope with. The largest paintings were 450x250cm, and I produce 10 such paintings a year. I work on them while climbing up and down the ladder hundreds of times.

In 2007, you were diagnosed with lung cancer. Fortunately, the cancer was detected at an early phase. As soon as you finished an anti-cancer treatment, you held a joint exhibition with Jung Bok-soo at the Gallery Artside in Seoul.

Have you completely recovered from your lung cancer?

The doctor says, as far as diseases go, people become patients after surgery. As for myself, I did not look like a patient even after the surgery. Life and death are not something that I can control. Patients should take full rest after a surgery, yet I came to my studio and started my work right away. I am healthy now.

What did you think about while you were in hospital?

When I was lying on the hospital bed after the cancer surgery, I was confident, yet at the same time I also felt insecure. In such a state, I was contemplating about myself. Until then, I had lived an overly confident life, believing that



my painting was the best. However, when I looked back on the past days while I was lying in the hospital bed, there was no single painting which I deemed worthy. I deeply reflected on myself, believing that I had been painting sham paintings. However, when I was discharged from hospital and recovered, I came to think again that my painting was nice after all, so I did not get rid of a single painting of my works. I think people can be really moody.

Your works for the exhibition are slightly different from your previous work. Did you try to portray people around you as the main characters?

The models of my works this time are people who are ordinary and whom I know relatively well.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a farmer or a successful businessman, they are physically restricted, and thus they tend to dream about deviation. So, when I talk to them, they are a little bit passive at first, yet they approach me in a proactive and voluntary manner, as they can see themselves in a different way through my paintings. The person in the painting is definitely the person himself, yet a completely different person is also seen. This is probably because of the fact that uncovering the person finally reveals the person inside. After all, the figure in the painting not only reveals the person, but also reveals my existence. I reveal my desires through painting, so they are overlapped with the models.

In fact, one of your painting's characteristics is the vivid colors, to the point of being crude.

That's true in a way. I have intentionally continued to produce colorful works. However, when I go back to my past paintings, I used to paint black-and-white paintings dur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of Chun Doo-hwan. My "Family Portrait" was produced at that time. I was painting black-and-white paintings relentlessly at that time, but then I stopped. And the black-and-white painting is now back again. This seems to be a kind of self-awareness on stress. I am a very sensitive artist, so I achieve a sort of catharsis while I am using colors. However, for paintings for this exhibition I produced black-and-white paintings, reflecting on restrained emotions. The reason why my paintings are so large is that I wanted to reveal the fundamental beauty and sublimity of humans. I felt that people who have continuously survived the harsh realities of Korea and will continue to survive were heartbreaking and at the same time beautiful. I also fought against disease at the crossroads of life and death, and all of these factors were combined, producing the latest paintings. At any rate, it is not my typical style, but this time I had an intention of approaching work starting from fundamental beauty.

The physical human body portrayed in your painting is beautiful and decadent.

I am not a very logical and conceptual artist. I'm more of an emotional and realistic artist. Yet, I also have a slight tendency toward being rebellious. I want to be liberated through my painting, while at the same time I do not wish to turn my back on the fragrance of life of humans. Overall, all of these aspects are entangled. And while working, I pick up materials for my painting from the sea of the world. Whether it is a maggot or a human, each of them is a respective boat floating on the waves of the sea called life. I merely paint people who are identified by perceptions. This time also, I did not intend to select specific models. At any rate, I intend to focus on what I want to say, regardless

of what kind of people I portray.

At the same time, a dark and gloomy atmosphere is also detected.

After all, painting is all about communication. Even masterpieces become worthless without communication. I think that painting exists to convey the intentions and ideas of the artist. That is why I think about how to effectively convey my ideas. I reveal such intentions through colors and other means, and the ability to combine them most appropriately depends on the talent of the artist. You can consider the dark and gloomy atmosphere as Ahn Chang-hong. It is not easy to both be satisfying to myself and at the same time to convey what I feel in my heart to the other party.

You possess a unique position in Korean art. Does it have any relationship with your life experience?

I believe that life and art are totally inseparable. The barometer of life is art. That is why I delve into things and people that reflect life, smell them, discover them, get along with them, and talk with them. It is as if to smell their life and fragrance. I also read novels and watch films, and in doing so, I get the help of all my senses.

You seem to be disinterested in commercial success.

Somebody said that there are two artists in Korea who are not interested in money, and one of them is me. In the past, even when I lived on instant noodles, not being able to afford rice, there were gallery owners who refused to buy my paintings. Because of that, I became arrogant, in a way: I opted for my self-pride rather than money, and I think that is why my lack of interest in commercial success has survived until today to this extent. Of course, I have experienced a lot of hardships. But I thought that it was better than to be, say, mentally impaired. I was happy even when I could not afford me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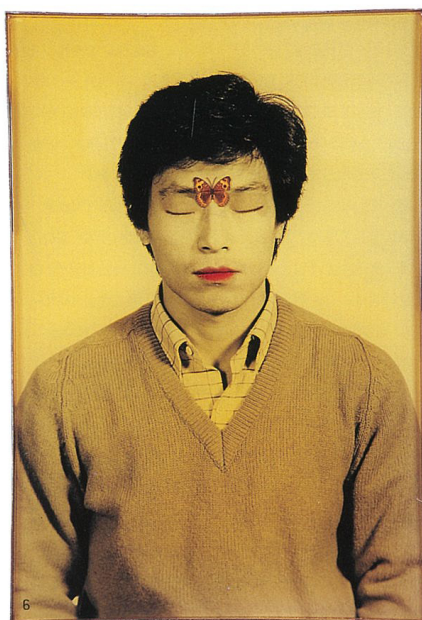
Where does such strength come from?

I think being rebellious or having guts is something that is inborn. Isn't it true that everybody sets their principles when they are young? People set principles and then nibble away at them, little by little. Then, finally the principles are all disintegrated. I have never blamed anything on the world. Rather, I ruthlessly pushed myself. I am the type of person who makes things hard for myself when I forget my principles. I have my own principles that I have to live by because I am an artist. They are really naïve principles I set up when I was very young. But then they are at least genuine. Things about justice and truth that people dream about and thought about when they are young are the genuine thing. Though they are gradually becoming

polluted and forgotten. They become dirty to justify self-excuse. I tried not to change like that, at least. When people reach my age, patience and persistence are required even when painting. It is in fact arduous to become an artist who conscientiously paints, exerting himself. I do not want to deviate from the principles I have set up.

You also painted flowers.

I experimented with flower painting and they sold so well that I stopped painting them. I held a flower painting exhibition around 1996 and all the paintings were sold. Actually, I wanted to convey so many messages through the flower paintings: It is one of the themes I want to get



involved in more fully. I plan to do this in a different way. Whatever I paint, I intend to convey my messages consistently in my painting.

When I view every single piece of your work, it seems that they have dark allusions.

My painting has energy and I paint it. The reason why I look happy and positive is that I am doing what I want, and my perceptions and ideas are in fact like the end of a needle. It is a needle hidden in an appearance that is as soft as a sponge. This is also the suffering of my life. I have poignant criticism and sympathy about the world, and I have issues on the absolute loneliness and death that people face. I have thought about death for a long time, as of a shadow.

It is an everlasting riddle, regardless of whether the person is a scientist, a prophet, or an artist. It is like an intangible and hidden rock in the ocean, conveying a sense of insecurity, like air that is impossible to define or measure. And that is why humans should have hope.

Do you paint self-portraits to release the suppression of your inner being?

Mostly lonely artists draw self-portraits. I draw them while looking at myself in the mirror. When I am drawing a self-portrait, I enjoy placing myself in a confrontation with myself - namely, myself and my reflection in the mirror. When people do self-portraits, they normally do them by looking at their images in pictures. When you see my self-portraits, my left hand is painted. Until my self-portrait is completed, I endlessly look at my eyes in the mirror. Another model resembling me is standing in the mirror. In such a confrontational structure, I literally hack myself into pieces and explore myself and find out parts of me or of my smell that are cast in a different world.

Since 2000, you have been using different mediums more boldly.

The 1990s started the process when I sorted out several internal problems and inferred myself; and I became more confident about what I have been doing since 2000. Based on such confidence, I went into a full experimental mode that formed the backbone of my work. I conducted a more proactive exploration of photographic series. It was also a time when I worked on painting in different styles. Needless to say, the destination all the experimentations pursue is the same. It could be said that I am stepping up a stairway by endless experimenting to reach a single destination.

What would the destination be like?

It is exploration about human existence. They could include themes about freedom and resistance, about the artist himself, and life and values of ordinary people.

Do you have interest in other fields?

Painting is not a completely spiritual expression. In fact, it is unstable. I once thought about producing things that cannot be depicted in paintings in the form of films. I want to make films with stories, like my paintings.

5. *Contemplation of 49 people*, acrylic and photography on wooden panel, 76 x 110cm, 2004

6. *Contemplation of 49 people*, acrylic and photography on wooden panel, 76 x 110cm, 2004